

안전은 언제 어떻게 일이 발생할지 항상 감사하는 초소의 보초와 같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곽병중

기획감사과장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처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 안전도 머무르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현 상황을 안전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위해 새로운 것을 근로자 앞에 내 놓는 곽병중 기획감사과장은 무주양수발전처의 안전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그를 만났다. 안전의 프로답게 자기관리에 있어서도 게을리 하지 않는 그는 산을 사랑하고, 하프마라톤을 완주하는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진취적인 기세로 앞으로 무재해 15배를 달성하고, BBPP 조기정착을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빈다.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바랍니다.

무주양수발전처는 1988년 5월에 착공하여 1995년에 준공한 순양수식발전소입니다.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하부저수지의 물을 해발 860m의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인데 낙차 높이는 579.5m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높이입니다.

지하발전소는 해발 최저 2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30평 아파트 약 400세대가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30만kW 2기로 연간 10억kW의 전력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지역 5~6%의 전력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양수발전소입니다.

늦게 남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심을 축하합니다. 안전인으로 이런 상을 받는데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우리 발전처는 88년부터 무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 무재해의 끈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안전한 무주양수발전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재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올해 커다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나만의 상이 아니라 우리 무주양수발전처 모두의 상이며, 앞



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2007년에 무재해 15배를 달성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부탁드립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군인이 초소에서 보초를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내일 또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이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안전에는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성실이 뒤 따라야 합니다. 한 가지의 안전활동 기법을 오래 지속하다보면 정착되어 좋으나, 여기서 머무르면 무감각해져서 긴장이 느슨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항상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2002년에 자율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구축하여 정착된 지금, 재인증과 더불어 다우케미컬의 선진안전기법인 BBPP를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래형 재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형 재해 근절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는 일용직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재래형 재해도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이 상해를 입습니다. 원인을 보면 시설적인 문제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에서 문제가 되는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안전의식이 있다면 재래형 재해와 같은 원시적인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 되어온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육기자재가 개발되어 시청각 교육과 체험장이 있으나 충분한 체험을 통한 교육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공기와 공정에 쫓겨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생략된 안전교육이 이행되고 있어 안전의식 형성에 있어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참여식, 체험식 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누비는 안전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인은 IMF 이후 지금까지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1인 3역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인의 업무 자체가 빛을 보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경영성과가 오르고 원가가 절감됨에 따른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과는 달리 안전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숨은 일꾼들인 안전인에게 나 하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에 긍지와 보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앞으로 경영, 안전, 마케팅 분야에 대해 경영분석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안전의 공로가 계량화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종덕 기자〉